

“잠녀문화 무형문화유산 등재 ‘문화’개념 확대·실체화 의의”

11일 제5회 해녀국제학술심포지엄서 우에스기 일본 세이조대학 글로벌센터장
“유네스코도 예상 못했던 시도…등재 위한 집단 자부심·지역적 노력 등 필요”

등록 : 2010년 10월 11일 (월) 17:51:54
최종수정 : 2010년 10월 11일 (월) 17:51:54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잠녀·아마 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글로벌 차원의 근대적인 문화 및 사회 개념의 재고 내지 재편을 촉구하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실체화’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해녀박물관 주최·주최 제주학회 주관으로 11일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해녀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우에스기 도미유 일본 세이조대학 글로벌 센터장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해녀문화의 발견과 창조:글로벌화의 관점’주제 발표에서 ‘잠녀·아마 문화’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에스기 센터장은 “잠녀·아마 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존 기준으로만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들 움직임은 유네스코가 글로벌한 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근간, 근대문화와 사회개념의 재고 내지는 재편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에스기 센터장은 특히 “잠녀·아마문화의 부각은 한국 제주도와 일본 도바 및 이세시마라는 매우 로컬한 장이 국경을 초월해 직접 연결된 트랜스 로컬 내지 트랜스 내셔널한 현상”이라며 “이는 유네스코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화 개념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복수의 역사적 유산을 하나의 유산군으로 등재하는 '연속유산(serial nomination)'을 예로 든 무에스기 센터장은 "무형문화유산에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지만 잠녀·아마 문화는 '분산형 문화'내지 '네트워크형 문화'로 접근이 가능하다"며 "살아있는 문화·전통으로 잠녀·아마문화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유네스코의 글로벌 전략의 이념을 무형문화유산에서도 구체화, '문화'의 개념을 확대하고 실체화한다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에스기 센터장은 "잠녀·아마 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움직임은 뜻하지 않게 글로벌 차원의 문화 및 사회개념의 재고·재편을 촉구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됐다"며 "잠녀·아마문화의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그 유산을 지닌 집단과 자치단체 등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